

9월 추석, 제주관광 터닝포인트 삼는다

추석 성수기 활용 좌석난·내국인 관광객 감소세 전환도, 21일 관광분야 민생경제 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항공 공급 확대 위해 협의체 구성... 콘텐츠 강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 추세를 바꿀 터닝포인트로 다음달 추석 성수기를 지정하고 항공 좌석난 해소와 콘텐츠 강화에 적극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도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관광분야 회의를 열고 관광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제주 관광객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른 2024년 상반기와 비교해 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선 공급 석은 일평균 5%, 총 37만 석 감소했다.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액도 지난 4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위성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항공 공급 확대와 제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임원, 제주도가 참여하는 '제주 항공 접근성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슬롯 운영과 항공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자연관광에 체험·웰니

스·문화콘텐츠 등을 결합해 체류기간을 늘리고, 노후 관광지와 영상 콘텐츠 연계 등 새로운 방문수요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을관광 성수기 전국체전과 추석연휴 등에 국내선 항공공급 회복과 관광수요 선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좌석 공급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사별 운항실적 점검과 계획 미이행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국토부·항공사와 공급좌석 조기 회복 및 성수기 대형기·임시편 투입 등을 협의한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제주여행 홍보를 강화하고, 세계유산축전과 제주비엔날레 등

대형 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마련한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관광사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으로 담보력을 보완하고,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보증은 사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000만 원 한도로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위성곤 지사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확대 등 경영상 판단은 이해하지만, 국내선 공급 감소가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제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와 국회, 항공사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안전사고 잇따라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기계에 끼이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5분쯤 서귀포시 보목포구에서 4m 높이의 포구 난간에서 어구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갯바위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날 오전 10시 16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작업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기계 레일에 팔이 끼이면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19일에도 오후 1시 54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60대 남성 C씨가 간이사다리차를 이용해 전신주 작업을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의식이 없는 등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닥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같은날 오후 6시 20분쯤 제주시 추자도에서 60대 남성 D씨가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끼임사고로 왼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추자보건지소를 찾았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교육교부금 개편안, 소규모 학교 존립 위협”

제주교총 논평서 유감 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정부가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깊은 유감을 표하며 “54년간 우리 공교육을 떠받쳐 온 내국세 연동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편안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숫자만을 앞세워 교육 현장의 실제 수요를 외면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전국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정률로 배분받기 때문에 전국 교부금 총액이 줄면 어떠한 완충 장치도 없이 제주 교육 재정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전국장애인체전 티켓으로 공영관광지 무료

제주도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을 관람하고 도내 공영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디지털 티켓을 발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개

회식 관람용 디지털 티켓 발급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최식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공식 누리집((https://jejusports.kr/46/index.htm)에서 티켓을 발급 받아

네이버페이 월렛에서 확인한 뒤 입장할 때 사용하면 된다.

티켓 발급 대상은 만 14세 이상 내국인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도 가족과 함께 동반할 경우 개최식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개회식은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티켓을 발급 받은 관람객은 제주도 공영관광지 24곳을 무료 입장하거나 입장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경기장 방문을 세 차례 인증하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만 원이 지급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계리 해안 찾은 관광객들 22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강희민기자

“자살 시도 은폐”... 전·현직 교육감 등 고발

정치하는엄마들·피해 학생 학부모 21일 제주경찰청 등 찾아 고발장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전·현직 제주도교육감 등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21일 고의숙 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리자 모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266일, 언론 공문화 이후 1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았다”며 “학폭 피해자의 고통을

은폐한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는 자살 시도 사건 발생 시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역시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도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사건인 자살시도 사건을 확인·인지·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감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건 축소·은폐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 의무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계 요구는 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평화로운 해결’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박소정기자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스님 제주에서 해양사고로 입적

서울 봉은사 주지스님을 지낸 명진스님이 지난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불교계와 소방,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전날 오전 9시38분쯤 서귀포시 하에동의 한 포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명진스님이 프리다이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명진스님은 1950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해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사미계를 받았다.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맡았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
제물자연휴양림

제9회 산사음악회

2026.08.30.(일) 13:30~16:00
제물자연휴양림 내 제물약수암 앞 특설무대

| 사회 | 양용현(드림컴퍼니)

| 출연진 | 제주시봉개동민속보존회, 싱어송라이터 주낸드, 가수 양하늘, 싱어송라이터 류준영, 마술사 원태운

| 프로그램 | 풍물놀이, 가요, 트로트, 매직저글링

| 부대행사 | 무료 국수제공(12:00~13:20), 차와 다식(13:00~13:30)

| 행사일정 |

식전공연 (13:30~13:40)
| 풍물놀이 | 제주시봉개동민속보존회

개회식 (13:40~14:00)
찬조출연 - 음니보이스 합창단

본 공연 (14:00~16:00)

 가요 주낸드 Sea of love - fly to the sky 나는 반딧불 - 황가람 아로하 - 조정석 꽃 떨어진다 - 자작곡 아름이 지나면 - 임재범 라리라 - SG 워너비	 가요 류준영 제주도의 푸른밤 여행을 떠나요 찾잔-노고지리 일라이보의 일 너만 있으면 돼(자작곡) 꽃(자작곡) 연예인-싸이
 트로트 양하늘 엄마아리랑 남이가 뿐이고 청춘을 돌려다오 처녀뱃사공	 매직저글링 원태운

관람료 | 무료(FREE ADMISSION)
※ 제주도민은 신분증 지참시 제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무료 / 주차료 별도

주최 | 한국불교조계종 제물약수암 문의 | 종무실장 010-3045-4589